

일본 양봉업계 大家 모리카와健康堂(株)를 찾아서

필자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모리카와(주)' 권순익 과장과 함께 일본 '모리카와건강당(주)'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길에 필자의 일본에 대한 지식은 경제대국,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전통을 큰 가치로 생각하며, 사무라이 무인, 일제시대, 나고야... 대충 이런 정도이다.

필자는 양봉생활을 시작한지 30여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여러 곳으로 사업의 의미를 찾으며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다. 89년에 나주시 토계동에 현재의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인 양봉산물 가공식품제조업에 뛰어든 필자는 당시 유럽과 일본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던 로얄제리, 프로폴리스에 대하여도 강한 개발의 의지를 갖고 기업의 창업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필자는 1985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국제양봉대회(제30회) 참가를 필로 식품박람회 (FOODEX JAPAN)에 두번씩이나 참여한 적이 있다. 1991년에는 대일물산전에 참가하여 나고야 오미하찌만 도시에 일주일간 비즈니스를 한 바 있는데, 그 때는 아카시아꿀·썩꿀차 등을 360만썩 정도 판매한 극성도 보여 전라남도지사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 여행문 서두에서 우선 '모리카와 토시오' 사장에 대하여 첫 대면과 이사람에 대해 느낀대로 소감등을 소개할까 한다.

작년 여름 프로폴리스 때문에 서울에서 이 분과 상담을 나눈바 있는데, 그때 그의 첫마디는 "나는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하여 프로폴리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명감 섞인 말투였다.

모리카와 사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데 그의 조부께서는 충북 괴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한국생활을 했었다는 것이다. 모리카와 사장은 97년 10월17일에 나주공장(가보농산)을 방문했을 적에 그의 식사는 매우 소탈했으며 특히 곰바우 소주를 매우 좋아했다. 반주로 한두병 정도는 거뜰히 치우는 애주가였다.

우리는 상호 기술협력을 의논하였고 그는 도와주겠노라며 급기야는 일본으로 나를 초청하기에 이른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달으면서 기체가 심한 흔들림에 정

신을 가다듬자 낯선 입간판들이 저멀리로 보였다. 기내방송에선 "지금 비행기는 나리따공항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바로 일본 나리따공항. 동행한 한국모리카와(주) 권과장은 짜여진 스케줄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분주히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는 권과장의 안내로 나리따익스프레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지나며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잘 정리된 농촌과 깨끗한 역사(驛舎)를 보며 "역시 일본이다"란 부러움의 말 한마디에 권과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며 여운을 남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 전부라고 할 양봉생활을 되돌아보며 후회한 적은 없었다고 자부하면서,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반전되어 난리들이고 정치·경제·문화의 현 모습을 보면서 이 일본땅을 밟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변화무쌍한 세계화의 정책에서 우리 한국의 양봉산업도 그 파고의 벽을 타고 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양봉업계는 어떻게 그 벽을 넘어, 로얄제리제품 생산의 메카라고 불리는 오스트랄리아, 브라질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연구개발하여 그들의 봉산물 상품을 세계 각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모리카와 건강당(주)는 현재의 모리카와토시오 사장의 선조대인 1569년 서양의 그리스도교 전파를 계기로 양봉산업을 시작한 것이 4백여년 전이라 하니, 지금 그는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아 기업으로 성장시킨 일본의 전형적 장인정신이 투철한 양봉의 대가였던 것이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1960년대부터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상온에서 보존이 어려운 로얄제리 제품을 상품화 하는데 성공하여 당당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또 프로폴리스를 상품화하여 일본시장내에서는 단



가보농산(주) 대표 김희성(본협 이사)

연 선두의 지리를 굳히고 있다 한다.

우리 국내 양봉업계 사정은 오직 벌꿀제품 개발에만 매달려 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 국내 양봉산업 발전의 주역들이 태만했다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 속에서 제품개발에 힘써왔으나 아직은 누구도 빛을 본 양봉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사회 전체가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쳐진 산업구조 그 자체가 내 제품에 정성을 쏟았으면 상대 제품도 신용해 줄 수 있는 소비문화가 형성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불신덩어리 벌꿀이 주산물인 양봉산물의 가공제품 시장 진출에 큰 애로는 바로 일본과 같은 소비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권과장이 열차 안에 설치돼 있는 자막뉴스에 한국의 대통령선거 각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희미한 음성에 불두해 있던 필자의 생각은 열차안으로 되돌아 왔다. 권과장은 말을 이어 오늘 스케줄에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신주쿠(新宿區)에 도착하면 모리카와건강당(주) 국제사업부 담당직원과 백화점 담당직원이 마중나와 숙박호텔의 체크인을 하고 곧바로 신주쿠 다카시미야 백화점의 건강식품 코너를 시찰하고, 도쿄역에 있는 타이마루백화점 건강식품 코너도 둘러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리카와토시오 사장을 접견한

후 함께한 저녁식사는 중국음식으로 준비돼 있다고 했다. 이윽고 열차 안내방송은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열차가 빌딩 숲으로 빨려들어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곧 신주쿠역에 도착하는구나..."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

지척이며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확한 열차 도착시간과 약속 장소, 권과장의 안내를 받는 필자가 칙사(勅使)정도나 된 기분이었다. 플랫폼에 내려 권과장의 소개로 국제사업부 '陳'이라는 대만인 여직원과 '오오사와'이라는 백화점 담당 남직원들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권과장에게 오늘의 스케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호텔 체크인 하고나서 처음 간 곳은 신주쿠의 다카시미야백화점의 건강식품 코너였다. 역시 역 주변의 백화점이라 그런지 많은 인파가 북새통을 이룬 혼잡이었다. 건강식품 코너를 견학하기 전 모리카와 백화점 담당직원들은 백화점 책임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찰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다. 정면에는 '모리카와건강당'의 진열상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프로폴리스엑기스', '네오폴로

폴리스', '정제프로폴리스사탕', '프로폴리스검' 등등...

그 아래는 로얄제리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로얄제리 골드750', 화분제품 등 또 그 밑에는 약간의 기타 건강식품류들과 타사의 프로폴리스 제품들도 진열돼 있었다. 옆 벽면으로는 역시 고려인삼 제품이 몇개 진열돼 있었으며, 찾아보리라 맘먹던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키토산' 제품은 1종류 밖에는 없었다. 또한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 상품들이 잘 진열돼 있었는데 정어제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안타까운 것은 벌꿀제품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몇개 담겨져 있을 뿐, 한국 백화점의 건강식품 코너와는 양상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일본에서는 양봉산물 즉, 프로폴리스 가공식품과 로얄제리 가공식품이 인기가 높다는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지하 매장에서 세일판매를 하고 있다는 안내자의 말에 따라 지하매장으로 찾아가 봤더니, 역시 모리카와건강당 제품들은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세일판매 할인율이 적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보통 10~30% 정도의 할인세일이 관행인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어도 1%도 채 안되는 세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으로는 동경역으로 안내되어 타이마루백화점을 시찰하였다. (다음호 계속)

제26회 양봉의 날 기념행사

4/10일 경북대 농대 '전자계산소강당'서 개최

오전 11시부터 양봉의날 기념행사

오후 1시부터는 '아까시나무 특별강연회'

4월4일은 우리의 '양봉의 날'. 이 날을 제정한 의미는 "양봉인도 밀원수를 심고 가꿔 양봉산업을 중흥시키자"는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 따라 작년 제25회 때는 4월17일 '아까시나무연구회' 행사와 연계하여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강당에서 "아까시나무 개발과 이용"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따라 현재 극도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학술발표회 보다는 양봉농가들이 쉽게 이해되는 농가 교육 차원의 특별강연 2-3편 정도의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키로 했다. 행사 개최장소는 작년과 같으나 강당은 500여명 수용가능한 전자계산소 강당을 쓰기로 했다. 참가 회원께서는 아까시나무연구회 회비 2만원씩을 지참 납부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도 역시 기념행사의 본뜻에

영업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으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중량 약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봉(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신·구형)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 (0596) 73-7366

벌꿀수매

그동안 저희 내고향전통식품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증진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채밀하신 소중한 꿀방울을 정성을 다해 수매하겠습니다.

IMF시대, 다시 도약하는 양봉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양질의 벌꿀수매 집하장 ☎(0342)716-5000~1
유자공장 ☎(0666) 34-1471~2

(구)유달양봉

내고향전통식품

대표 황성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98 - 6

약도 : 판교IC에서 수원간 국도 4.5km 지점